

영어교육 27호
1984년 2월

영어교육과 영문학

申 明 信
(성신여자대학교)

I. 머리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TEFL) 어느 단계에서 영문학을 수용하고 있다. Povey(1965:185)가 지적했듯이,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에서의 영어 학습은 문법과 표준 영어 훈련이 지나면 점차 문학 연구로 옮겨 가는데, 이런 오랜 전통 때문인지 TEFL 프로그램에서도 전제조건처럼 문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과연 TEFL에 문학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당성은 무엇인가? TEFL 프로그램에 문학이 수용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제대로 논란이 된 적이 없는 것 같다.¹⁾

이 논문의 목적은 TEFL 프로그램에서의 영문학의 위치와 역할을 검토해 보려는데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1)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문학이 왜 대두되는가.
- (2)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 (3) TEFL 프로그램에 문학을 포함하는 찬반 논쟁은 무엇인가.
- (4) 문학작품을 읽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5) 문학작품도 읽고 영어공부도 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또 결국 문학이 TEFL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 (6) TEFL에 문학을 수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1) 우리나라 대학 영문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윤삼하(1980), 이창배(1982), 배양서(1983)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영문학 수업의 문제점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문학 문제의 대두

먼저 TEFL 프로그램에 문학 문제가 대두되는 때 또는 단계는 Topping (1968 : 96)이 언급하듯이, 모방과 암기와 패턴 연습의 초급 수준이 지난 후 중·고급 수준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The problem that consistently plagues the teacher of second languages is what to do after mimicry and memorization of dialogues, pattern practices, and substitution drills. Where does he turn to find the resources, devices, and techniques to take him beyond this primary level of language instruction—the fun part—to a level which enable the student to function effectively in the second language? I refer to that group of students usually classified as intermediate or advanced.

또 문학을 이른바 언어 학습의 4기능과 관련지워 본다면, 넓게 해석하면 4분야에 다 관련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읽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Arthur(1968 : 208)가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Literature has generally been introduced in an ESL program as an aid to teaching reading. Consequently, students have had little or no exposure to literature in English until they were well along in their mastery of the language. If literature is presented orally, it can be introduced at an earlier stage of language learning.

문학이 외국어 교육에 있어 언제 어디에 관련되는가에 이어서 왜 관련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언어와 문학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어, 한 외국어를 배우는 전 과정은 학습 대상 언어로 쓰인 문학에 친숙함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3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Scott(1965 : 292-93)가 지적하듯이, 한 외국어의 완전한 구사는 그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대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도 익혀야 하는데, 이 목표를 성취하는 가장 분명한 수단이 문학 연구라는 것이다.

Lip-service, at least, is consistently paid to the proposition that full and effective

communication in a second language presupposes not only a knowledge of *how* things are said in that language, but also *what* is said—which is another way of saying that the learner must come to know the culture of those who speak the second language. ...My purpose here is to focus attention on one of the most obvious and most valuable means of achieving this goal of cultural orientation. I refer, of course, to the study of literature, in so far as such study can be properly includ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ota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rogram.

둘째는 언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학 연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습 대상 언어로 쓰인 문학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그 언어를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에 언급할 문학의 보편적인 가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문학과 언어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Chattopadhyay (1983 : 37)가 이 주장을 잘 대변해 준다.

...the study of language can never be complete without a proper appreciation of the literary works in that language. The same is true of literature: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literature of a country without having control over the language of that country.

세째는 언어를 매체로 한 삶의 표현인 문학은 실질과목과는 달리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하여 결국 더 나은 삶과 인간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는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언어 학습 자료로 인생을 알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넓혀주고 아름다움과 기쁨과 재미를 주며 심리적으로 더 생생하고 그럴듯한 fiction이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말이다. 언어 교육이 문학을 통해서 인간 마음 개발에도 이바지된다는 이 문제는 사실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더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Ⅲ. 문학작품을 읽는 목적

다른 해설적인 글을 비롯해 비문학적인 산문을 읽는 것과는 달리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흔히 즐거움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문학작품과 독자 사이의 특별한 종류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다름아닌 그 문학작품 밖의 주변 상황이나 자신을 잊은 채 지적 정서적으로 그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문학적 체험(literary experience)이라고

한다. Arthur(1968 : 202)는 문학적 체험의 정의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The immediate pleasure or satisfaction to be derived from reading or hearing literature is the pleasure derived from a special kind of emotional and intellectual involvement with the story, what is here called a literary experience. All literary experiences share certain characteristics. First, the reader cannot consciously induce a literary experience; it must, in a sense, happen to him. Second, a literary experience requires a story suitable for the reader and a reader willing and prepared to react to the story. Finally, a literary experience requires the reader's tot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involvement. The reader cannot at the same time be conscious of anything external to the story.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문학은 문학적 체험으로 읽혀져야 마땅하며, 문학이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일부가 되자면 또한 문학적 체험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가능성이 문학을 통한 외국어 교육의 매력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비문학적 산문을 읽는 것보다 다를 바가 없게 된다. Fries(Scott 1965 : 294)도 문학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적 체험을 학생들이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primary and immediate aim in the teaching of literature is to help students realize as fully as possible the literary experience inherent in each selection—the experience of some facet of our culture, in other words, that has been immobilized in the poem, the story, or the drama.

IV. 문학 포함 찬반론

TEFL 또는 TESL 프로그램에 문학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찬성과 반대 논쟁은 그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체로 찬성하는 쪽은 문학이 영어 커리큘럼에 유용한 도구이지만 프로그램에 수용할 때 조건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문학의 자리를 거부하는 쪽은 대체로 어떤 조건의 예외도 인정치 않고 반대를 주장하는 것 같다.

문헌을 살살이 뒤지면 더 많은 학자들이 찬반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입수한 문헌을 중심으로 TEF/SL 교실에 문학 도

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놓고 벌린 대표적인 찬반논쟁은 Povey(1967발표, 1972 : 187-91)의 ESL 교실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4 가지 일반 목적과 이에 대한 Topping(1968 : 97-100)의 반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Povey(p.187)는 "a reasonable series of general aims in the teaching of literature"로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1. Literature will increase all language skills because literature will extend linguistic knowledge by giving evidence and subtle vocabulary usage, and complex and exact syntax. It will often represent in a general way the style that can properly stand as a model for students.
2. Literature is a link towards that culture which sustains the expression of any language. American literature will open up the culture of this country to the foreign student in a manner analogous to the extension of the native speaker's own awareness of his own culture.
3. We must acknowledge the indefinable, though all-important, concept that literature gives one awareness and human insight. In this respect great literature can be justified as one could assert the value of listening to a major symphony.
4. Literature may guide a few more gifted students towards their own creativity by example derived from their reading of successful writers.

Although each of these four elements is relevant to the foreign student, the first and second will be of most immediate and specific concern to the ESL teacher. This is because the issues listed as three and four have the clearest analogies with the students' first-language culture.

계속해서 Povey(p.188, p.189)는 문학의 어학적 어려움은 과장되어졌다고 하며, 어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이해라고 주장한다.

Povey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Topping은 조목 조목 반박을 한다. 가능한 한 Topping의 반박 요지를 그의 영문 본문을 살려 정리하고자 한다.

1. Increasing all language skills 문제

- (a) Reading the works of a literary giant — even in my own language—will have no more positive effect on my own language skills than the grading of freshman composition papers would have, in a negative way, on the hapless teaching assistant. At best, reading may improve our reading skills; but its effect on

one's own speaking, listening, and writing skills will be nil. (p. 97)

- (b) If our purpose is to teach control of standard English syntax, including compound and complex constructions, then we are doing our students a terrible disservice by asking them to imitate those who practice artful violation of the syntactic rules. (pp. 97-98)
- (c) ...the language of what we define as good literature is too complex and unusual for all but the best of our second-language students, who are already beyond need for further careful training in language. (p. 98)

2. Cultural orientation 문제

- (a) Rip van Winkle does not reflect my American culture anymore than the Pony Express reflects our system of transporting mail. What our literature reflects—even that of ten years ago—is tradition, a past stage in the evolution of American culture. The student who needs to learn about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does not need to dig up the fossils of past eras. That sort of study is for the specialist. (p. 99)
- (b) If we want to supplement his cultural experiences with reading, then we should make available such source material as the Davenport News and the Los Angeles Times, the Watchtower and Ramparts, the sermons of Billy Graham, Stokely Carmichael, and Mario Savio. Our students are much more likely to want to read of the Pueblo rather than “The Open Boat,” or of the siege of Hue instead of *The Red Badge of Courage*. These are the reflections of contemporary America, the America that our students need to know. (p. 100)

Topping은 Povey의 3항과 4항에 대해선 직접적인 반박은 없고, 다만 문학적 천재성이 대가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p.97) 지적한다. 그대신 문학이 문학적 체험을 학생들에게 경험시킨다는 문제에 대해 비현실성을 지적한다.

Is it not highly unrealistic to expect a student of agriculture, botany, or even linguistics to undergo some sort of esoteric literary experience in a language and a tradition that are totally alien to him, while our own native-born students look upon courses in literature as dreary requirements that must be fulfilled for graduation? (p. 99)

해외 영어 학습자를 위해 영문학 공부가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반대 의견을 펴는 Baird(1969 : 280-81)는 4 가지 각도에서 찬성의견에 대한 반

대 이유를 밝힌다.

1. 영문학 공부의 “fosters the habit of clear thinking and thence of cogent argument, a sense of evidence, and impartiality in judgement”함으로 어학 기술과 관련 없이 교육적이라는 주장.

—분명히 이 정도는 특징적인 이점이 되지 못한다.

2. 달리는 인식하지 못했을 ideas에 접근하게 해준다는 주장.

—학생이 선택하는 다른 과목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3. 영문학 연구에서 학생은 English background에 대해 배우게 된다는 주장.

—문학적이 아닌 영화나 신문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4. Cultural background에 대한 지식없이는 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

—외국 학생이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릴 정도로 외국 문학에 빠져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로 정서적 경험을 확대시켜 주는 수단으로서의 문학 연구의 정당성에 관해 반론을 제기한 Baird(p. 281)는 결론으로 “...the argument for literary study as a means of enlarging our emotional experience seems rather a weak one.”이라고 주장한다.

문학 texts가 성공적으로 이용되려면 잘 선택되어야 하고 미적 상호작용(aesthetic interac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McKay(1982 : 529-31)는 문학 사용을 반대하는 일반적인 주장 3가지를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문학이 ESL 교실에서 이모움이 있다는 찬성 주장을 피력한다.

1. ESL 교사의 목적은 the grammar of the language를 가르치는 것인데, 문학은 구문적 복잡성과 독특한 언어 사용이어서 이 목적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주장.

—최근 많은 문학 texts가 문법적 요점과 어휘 신장을 다루고 있어 language usage²⁾를 확대시키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 또 문학이 language in discourse을 제시하고, 특수한 register or dialect을 예시하는 말이 social context에서 구현됨으로 language use의 인식 개발에도 이상적이다.

2. 문학 연구가 학생들의 학문적 직업적 목적에 도움이 못된다는 주장.

—다른 유형의 texts를 배제하고 문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님으로, 문학이나 산문이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읽기 과정은 독자와 text 사이의 언어를 해

2) Cf. McKay(1982 : 529). There are as Widdowson(1978 : 3) points out two levels of linguistic knowledge: the level of *usage* and the level of *use*. According to his definition, *usage* involves a knowledge of linguistic rules, whereas *use* entails knowing how to use these rul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독(decoding)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언어학적 그리고 개념적인 상호작용인데, 어떤 학생에게는 문학은 그가 읽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affective, attitudinal and experimental factors”을 마련해 줌으로 문학 texts가 읽기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학생의 학문적 직업적 목적에 공헌하게 된다.

3. 문학이 특수한 문화적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ESL 학생들에게 어렵다는 주장. —문화 이해의 어려움은 인정되지만,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키며 학생의 창의력을 증진시킨다.

이상의 McKay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n summary, literature offers several benefits to ESL classes. It can be useful in developing linguistic knowledge both on a usage and use level. Secondly, to the extent that students enjoy reading literature, it may increase their motivation to interact with a text and thus, ultimately increase their reading proficiency. Finally, an examination of a foreign culture through literature may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at culture and perhaps spur their own creation of imaginative works. (p. 531)

TEFL 프로그램에서의 문학의 위치를 두고 별리는 찬반 논의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판단은 V-VII장을 통해서 암시될 것인데, 아뭏든 지금까지의 찬반 논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찬 성>

1. 문학은 어휘, 구문, 문체 등 어학 기술을 증진시킨다.
2. target language을 쓰는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시킨다.
3. 문학은 재미와 인간의 통찰력, 창의력 등 정서적 경험을 제공한다.

<반 대>

1. 문학의 언어는 어렵고, 어학 기술 증진은 다른 비문학적 산문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2. 문화의 이해는 다른 수단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3. 문학이 정서적 경험의 확대 수단이라는 정당성은 약하고, 언어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의 임무이다.

V. 문학적 체험의 전제조건

앞서 III장에서 문학은 문학적 체험으로 읽혀져야 하고, 문학이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일부가 되려면 문학적 체험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 영어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영문학 작품이 문학적 체험으로 읽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학습자에게 먼저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가?

아래 몇 학자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한마디로 언어학적 그리고 문화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학생의 영어 능력과 문학 작품에 대한 문화적 배경의 지식이 그 작품을 어느 정도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에 다달아야 함을 뜻한다.

Scott (p. 294)

...the adequate realization of this literary experience demands a linguistic preparedness on the part of the reader which second language learners obviously lack.
Baird (p. 279)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a certain level of efficiency in the skills of language is needed before one can begin to study the literature of any tongue.

Schulz (1982: 9)

Generally speaking, the introduction of literary texts presupposes a certain mastery of both the language and the reading skill *per se*.

Povey (p.188, p.189)

I wish to argue that language difficulty [for the ESL student may have been exaggerated as a greater dragon than it really is....It has been my experience that the whole area of cultural comprehension is more likely than language problems to cause difficulty.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면 언어학적 문화적 준비 부족이 왜 문학적 체험을 달성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문학이 TEFL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일까? 만일 학생이 모르는 단어와 숙어가 많아 되풀이해서 사전을 찾거나 용어해설을 참고해야 하고, 구문이 생소하거나 복잡하여 구문 파악이 잘 안 되고, 읽기 기술이 미흡하여 독해가 안 되거나 느리고, 거기다 그 문학 작품의 문화적 가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작품의 참된 의미 전달과 해석이 포착되지 못한다면, 이는 문학적 체험으로 그 작품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Arthur (p.204)의 말처럼 “The reader cannot sustain total involvement in the story if he must continually struggle with the mechanics of sentence structure.” 하게 되어 의도되었던 문학 프로그램으로서 실패되는 것이다.

Ⅵ. 문학을 통한 영어교육의 문제

이한빈(1980: 3과 각주 5 참조)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그 기반이 대체로 문학에 있어 왔다. 지금도 많은 영어교육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는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을 공부하면서 영어를—또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문학을—공부하니까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Smith(1972: 274)가 옳게 짚었듯이, grammar-translation 교수법에서 문학작품이 학습 자료로 자연스런 선택이기도 하였다.

In the heyday of grammar/translation teaching, no one questioned the position of literature in a foreign-language syllabus. It had pride of place. It was considered that the most prestigious manifestation of language was a natural choice for teaching material. The view had its logic, since the commonest goal for a foreign-language syllabus was indeed to enable the pupils to read literature. Any other material was used to teach 'literary' English and not the practical spoken language. Teaching was kept very much within the sphere of the written literary text.

과연 문학작품을 문학적 체험으로 읽으면서 영어공부도 동시에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일까? 불행히도 흔히 믿기쉽게 주장되어 온 이 일석이조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옳지 못하다. 이 문학적 체험의 달성 목적과 언어 기술 학습의 유용한 도구라는 딜레마에 관해서 Arthur(pp. 203-205)가 명쾌한 논리를 전개했다.

Arthur의 논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f literature is to provide a useful vehicle for the teaching of second language skills, it must first succeed as a literary experience. After all, literature is not the only vehicle for introducing new vocabulary words, new sentence patterns, and a knowledge of culture. Expository, descriptive, factual prose could accomplish these same goals. Indeed, non-literary prose would certainly accomplish these goals more effectively than literature that students face with dread or indifference. Literature has a place in the ESL program only if it teaches better than other forms of prose. (p. 203)*
2. *If literature is to be used in a second language program, the goals to be achieved through the use of literature must be compatible with the reading of that literature for the literary experience. If the student cannot read the literature with*

total involvement and at the same time use the literature as an aid to language learning, then the use of literature should be abandoned. (p. 204)

3. In order to read a story with pleasure, [to [read it as literary experience, the reader must understand the literal meanings conveyed by words and sentence structures in addition to the cultural connotations of the words and of the actions and situations that those words describe. But if the reader understands the language of the story, then that story will be of no value to him as a language learning device. A story won't teach vocabulary unless it uses words the reader doesn't already understand. Similarly, a story can teach sentence structure only if that story introduces sentence structures with which the reader is not familiar. Finally, literature increases knowledge of culture only if the literature provides examples of cultural assumptions unfamiliar to the reader. Using literature as part of a second language learning program would seem to reduce, perhaps even to preclude, the possibility that this literature will ever evoke a literary experience. (p. 205)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은 어학실력이 있어야 문학적 체험으로 다루워질 수 있는데, 문학적 체험으로 다루워질 수 있다면 언어 기술 학습의 도구기능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어학 실력이 부족한 상태로는 문학적 체험으로 문학 작품을 읽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학 기술 훈련프로그램에 굳이 문학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Marckwardt(1981 : 5)는 상당한 어학기술의 숙달까지 문학 도입을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reason for specifying a late introduction of literature in this situation is to avoid or guard against the use of literary texts as drill materials for the acquisition of language skills. Here I am in agreement with many modern language teachers in the United States who consider such a use of literature as totally inappropriate. In fact, even to try to give equal emphasis to language and literature within the same course often results in neither one being well taught. On the basis of this it would seem wise to defer the introduction of literary studies until a fair degree of mastery of the language skills has been attaine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student be able to read smoothly and easily without constant thumbing of a glossary or dictionary. This will probably be in the fifth year of instruction in a well-planned and well-executed course of study; certainly no earlier than the fourth.

이 장에서 지금까지 필자는 마치 문학이 TEFL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듯한

인상을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원칙의 문제에서 문학이 TEFL 프로그램에 최선의 수단이 되지 못함과 다른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려 한 것이지, 유용과 무용의 양분론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을 읽어서는 새로운 어휘를 배우고, 특이한 구문 구조와 문체를 익히며, 학습대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누가 주장하겠는가? 문제는 이런 목적에 과연 문학이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질문이다.

어학 기술 훈련에 국한시켜 말해서, 그러면 문학이 TEFL에 기여하는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Scott(p.296)가 천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어학 숙달 이후의 reinforcement devices라고 말할 수 있다.³⁾

...literary selections should not be the instruments to discover new linguistic facts about the language itself, but rather that they should be rewards after a degree of proficiency has been gained. In this view, the importance of the literary selections to the language-learning phase of the total program lies in their value as reinforcement devices.

즉 이미 어느 수준에 다다른 어학 기술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읽어내면서 어학 기술을 다지고 또 새로운 기술도 일부 학습한다는 것이다.

한편 Pattison(1965 : 289, 290)은 언어 교육의 보조로 사용될 문학적인 자료는 배운 그리고 배울 언어학적 특질을 반복시키는데 공헌한다고 한다.

The important requirement in specially written material to be used as an aid to language teaching is that each specimen should, in addition to including previously learned language, repeat several times a structure or other systematic feature of the language to be learned. This requirement is not always met by course books, which follow up reading passages with grammatical items scarcely represented in them. Stories for young children can easily be constructed to provide the necessary repetition: repetition is a favourite device of fairy stories and nursery rhymes...The literary material that is designed to assist language teaching will usually be preceded by presentation of the linguistic feature to be given special prominence and will be followed by further practice of the feature.

-
- 3) 문학의 또다른 기여로 흔히 이야기되는 문화이해 수단 문제는 앞서 논란되었듯이 문학을 이해하자면 먼저 문화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문학이 문화이해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문학을 위한 문화와 문화를 위한 문학의 딜레마에 또한 빠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Ⅶ. 문학 수용 조건

앞서 IV장에서 언급했고 McKay(p. 529)의 "...if the literary texts are to be used successfully in the classroom, they must be carefully selected and approached..."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ESL 프로그램에 문학의 유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문학 작품이 교실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빼놓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면 문학 수용이 어떤 전제와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어학 숙달도, 교재, 장르, 수업 방식 등의 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어학 숙달도

이제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문학이 외국어 프로그램의 가치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은 문학 프로그램이어야지 단지 어학 기술의 확대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음이 암시되었다. 따라서 다소 본격적인 문학이 외국어 프로그램에 언제 도입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도 암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학 기술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V장에서 인용된 Scott, Baird, Schulz와 VI장에서 인용된 Marckwardt의 주장과 아래 Zyngier(1981 : 33)의 주장처럼 효과적인 외국어 문학 수업은 학생의 상당한 외국어 실력을 제일 중요한 전제로 삼는다.

How can your students read and understand Shakespeare or Wordsworth, especially if they do not have full command of the language nor the necessary cultural background? ...a student may be required to reach intermediate level before taking a literature course. To make teaching effective and to get better results, teachers should insist that students have some knowledge of the language, in order to obviate the need for simplified versions or translations.

한편 모든 texts의 comprehension difficulty가 조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texts의 readability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⁴⁾ Schulz(1982 : 10)는 이렇게 지적한다.

My thesis is that through careful selection of literary texts according to their

4) Instructor Judgment, Cloze-Procedure Testing, Statistical Readability Devices 등 자세한 측정 방법은 Schulz(pp. 10-13)를 참조하기 바람.

linguistic difficulty we can avoid “frustrational”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and increase the comprehension, appreciation, and enjoyment of literature.

2. 교 재

여러 학자들이 ESL 교실에서 다루워질 문학적 교재의 조건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literary texts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어떤 것들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먼저 몇 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

Marckwardt(1981 : 2-3)는 작품 선택의 두 기본 원칙으로 현대 작품인 것 (“contemporary, written in the modern idiom”)과 영·미국에 국한시키지 말 것 (“written in as many of the English-speaking countries as possible”)을 제안한다. 그는 contemporary의 개념을 시간적 간격 때문에 학생에게 어학적 어려움을 야기시키지 않는 작품이라고 밝힌다. 이 원칙에서 보면 학부 영문학 전공 커리큘럼에서 Shakespeare는 꽤 늦게 도입되어야 한다. 조금 다른 이유에서 이지만 Schulz(p. 10)는 외국 학생에게 편집이 안된 채로 소위 “authentic” texts를 무분별하게 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Povey(p. 186)는 survey course에서 연대순으로 한다고 *Beowulf*을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ESL 프로그램에 문학 효용론을 주장하면서도 문학 수용이 성공을 거두려면 문학 작품의 선택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McKay(pp. 531-32)는 교재가 어학적(어휘, 구문, 문체)으로, 문화적으로, 문학적(plot, character)으로 쉬운 것이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그는 쉬운 것이어야 한다고 해서 흔히 하는 text 축약(simplification)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readability counts에 따라 비교적 쉬운 text를 고를 것과, theme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문제를 다루며, 길이가 비교적 짧고,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며, 구문과 문체가 복잡하지 않은 젊은이(young adults)를 위해 쓰여진 작품을 선택하라고 한다.

문학적 체험을 중요시 하는 Arthur(pp. 206-208)는 “non-verbal clues”을 동원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는 게 좋다고 하면서, 그림을 많이 실고, 낭송시는 어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등 시청각 자료를 동반하기를 제안한다. 또 자국어로 친숙한 작품도 괜찮다고 한다. 그도 교재가 어학적으로 어렵지 않게 엄격히 통제가 가해져야 함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선택된 작품은 current English로 다양한 문체로 쓰여진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Smith(p. 276)는 내용이 영어 생활권 사람들의 사회 생활과 사건의 여러 모습을 보여줘, 외부 세계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 여러가지 교재의 성격에 대한 주문이 있겠으나, 중요한 조건들이 거의 다 제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요약하면 TEFL에 도입될 문학 작품은 현대 영어로 쓰인 젊은이에 관계된 내용으로 어학적 문화적 문학적 이해가 어렵지 않으면서 구성과 내용이 학습 성취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 까다로운 조건에 잘 맞는 문학 작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3. 장 르

“...the aims of instruction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re decidedly more modest than those associated with the English-as-a-second-language situation.”라고 ESL 상황과 EFL 상황을 구별 인식하고 있는 Marckwardt(pp. 4-5)는 어떤 문학 장르가 EFL 프로그램에 적합한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4~5년째부터 도입될 문학 자료는 학생들의 나이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material that is primarily narrative, where the story interest—what happens—outweighs everything else”이다. 이런 자료는

- (a) 마치는때 시간이 덜 걸리며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short stories
- (b) 영·미국인이 영어학습자의 나라를 방문하고 쓴 travel account
- (c) 영·미국의 folk literature

가 좋다.

그 다음 단계는 “material that derives its chief interest not so much from what someone does but instead from the kind of person he is, and from the inter-action of character with character”로

- (d) Hawthorne의 “The Great Stone Face” 같은 story
- (e) poetry

를 들고 있다.

결론으로 Marckwardt의 단계에 따른 적절한 장르의 도입 원칙은 그가 밝힌대로 “the overall progression should be to move from that which is most direct in statement to that which is less so.”라고 말할 수 있다.

4. 수업 방식

앞서 곳곳에서 언급되었듯이 문학 texts가 언어 학습 교실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워지려면 재미와 지적 정서적 참여로 설명되는 문학 본래의 목적이 달성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학 texts가 문학적 체험 이외 비 문학적인 목적의 도구가 된다면, 즉 pattern practice, substitution drills, 그 밖의 어학 훈련의 수단이 되고 만다면, Power(1981 : 8)도 지적하듯이, 우리는 문학 작품을 버리고 이런 목적에 더 효과적인 다른 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Yet we do not teach literature primarily for the accompanying lists of idioms or vocabulary or the exercises the editors provide: there are probably more efficient ways of getting these tools.

의식적인 어학 훈련이 주 목적이 아니고 학생에게 문학적 체험을 불러 일으키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문학 수업은 다음의 3가지가 요청된다고 Arthur(p. 209)는 말한다.

- (a) 아늑하고 비강압적인 분위기
- (b) 설명의 최소화
- (c) 바로 test를 하지 않기

한편 “The major justification for inclusion of literature at all levels of language instruction is that it can prompt class discussion better than almost anything else.”라고 문학 수업의 class discussion을 강조하는 Power(1981 : 8-10)는 종래의 비효과적인 질문 방식대신, 작품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 활발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학생들이 그 이야기의 세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 reading을 조장하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학 지식을 충동원해 쓰는 것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끝으로 대학 수준에 오면 plays와 novels 등 비교적 긴 작품을 다루게 될 것인데 이때 분량의 문제가 대두된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수업시간 수로 어떻게 다 다루워야 할 것인가이다. 다시 Marckwardt(p.6)에 의하면 대부분은 번역으로 읽고 몇 key chapters만 교실에서 자세히 분석하기를 권장한다.

I would favor works that have been translated into the country's language. Moreover, and even more radically, I would recommend that the bulk of any long work be read in translation, but that the few really key chapters of a novel or scenes of a play be read in English and be carefully analyzed in class.

Yorke(1980 : 314-15)도 책의 2/3 분량이하로 “key passages...which are exciting and vital to the plot, which show character, reveal the author's ideas or technique, etc.” 만 발매하여 학생들에게 한 paragraph에서 3페이지에 이르는 passage 하나씩을 나누워 주어 읽히고 교실에서 종합하는 Shrinking

Book Technique 를 제안하고 있다.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TEFL에서의 문학의 위치와 조건을 살펴보았다. 중고급 수준의 읽기 기능과 관련되는 문학은 언어와 문학의 밀접한 관계, 문화의 이해,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대두된다. 문학은 문학적 체험으로 다루워져야 하며, 그래야만 외국어 교육에 매력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어학 숙달과 문화적 배경의 지식을 전제로 하는 문학적 체험의 실현은 문학의 언어 기술 학습 수단 기능과 엄밀한 의미에서 양립될 수 없다. 외국어 학습의 직접적인 기여가 강화와 반복에 불과한 문학은 어학 숙달, 교재, 수업방식 등에 있어 프로그램 수용에 까다로운 조건의 충족이 요구된다.

이렇게 문학이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제약이 많은 최선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또 여건이 문학 작품이외 다른 자료의 활용이 풍부하다면, 우리의 TEFL 프로그램에 문학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Smith (1972: 274-75)의 지적처럼 문학에서 실용과목으로 변천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one could say that there has been a swing away from literature towards the teaching of practical English, that is, English to be heard, spoken, written, and read in various practical day-to-day situations.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nd obtaining information of a non-literary nature. Needs have changed and the place of literature in language teaching has accordingly changed as well. ...Given this new teaching situation, a teacher on the look-out for written material is quite likely to choose texts in non-literary English, such as newspaper clippings and excerpts from scientific textbooks. ...Literary matters are now dealt with in specialist courses on literature.⁵⁾

5) 그러나 Smith(p. 275)는 다음 paragraph에서 "This separation of language from literature, or of practical English from English literature, involves no rigid dichotomy. It has to be a matter of emphasis."라는 단서를 잊지 않고 있다.

한편 이한빈(1980: 3)도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문학기반에서 실질과학기반으로 옮겨져야 되겠다고 주장한다. "해방후 30여년간 우리의 대학에 있어서의 영어교육은 그 기반이 대체로 문학에 있었다. 영문학의 소재를 가지고 독해, 문법, 작문도 그것을 기초로 했는데, 지금은 영어에 접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어지고

끝으로 EFL 환경에서 영문학 교육 성공의 앞서 지적된 까다로운 전제조건들이 무시된 결과,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영문학 교육 현실은, 이창배(1982: 2-3)의 올바른 지적처럼 “영문학 작품을 어학적 훈련면에 치중하여 해석하고 문법적 설명을 가하는 면은 한국대학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수업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의 수업에 충실하다 보면, 한 학기에 소설교재 2, 30페이지에 해석해 주고마는, 문학강의인지 일반영어 강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업이 되고마는 수가 있다.”

이처럼 영문학 수업이 영어 수업으로 퇴보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대학 영문과의 영어교육과의 해묵은 과제인 「선 영어기능 숙달, 후 영문학교육」의 순위가 지켜져야 한다. 일찌기 Pattison(1965: 292)도 이 순서를 역설하고 있다.

Only specialists in universities are fitted for the study of literature, and they are fitted only after they have attained a fairly high level of reading ability. ...The teacher who encourages them to [run before they can walk risks rote learning instead of the development of genuine capacity to deal with literature.

어학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문학은 그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며, 다만 숙달된 어학 기술이 문학을 다루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References

- 배양서. 1983. 한국대학 영어문학 교육의 좌표. 「영어교육」 25호. 1-14.
 윤삼하. 1980. 영문학 교육의 과제. 「영어교육」 19호. 53-70.
 이창배. 1982. 한국대학에서의 영문학 교육. 「영어교육」 23호. 1-8.
 이한빈. 1980. 미래가 요구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19호. 1-4.
 Arthur, Bradford. 1968. Reading Literature and Learning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18. 3-4. 199-210.
 Baird, Alexander. 1969. Literature Overseas: The Question of Linguistic Competence. *ELT* 23. 3. 279-83.
 Chattopadhyay, Rathindranth. 1983. The Role of Literature in the Study of Language. *English Teaching Forum* 21. 2. 36-37.
 Marckwardt, Albert H. 1981. What Literature to Teach: Principles of Selection and

또 대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과목들도 역사, 경제, 사회과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과목을 기반으로 한 대학의 영어교육이 되어야겠다.”

- Class Treatment. *English Teaching Forum* 19. 1. 2-7.
- McKay, Sandra. 1982.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16. 4. 529-36.
- Pattison, Bruce. 1965. The Literature Lesson. In Allen, Harold B.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Povey, John F. 1972. Literature in TESL Programs: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In Allen, Harold B. and R. N. Campbell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2nd ed. New York: McGraw-Hill, Inc.
- Power, Helen W. 1981. Literature for Language Students: The Question of Value and Valuable Questions. *English Teaching Forum* 19. 1. 8-10.
- Schulz, Renate A. 1982. Literature and Readability: Bridging the Gap in Foreign-Language Reading. *English Teaching Forum* 20. 4. 9-14.
- Scott, Charles T. 1965. Literature and the ESL Program. In Allen, Harold B.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Smith, M. Sharwood. 1972. Some Thoughts on the Place of Literature in a Practical English Syllabus. *ELT* 26. 3. 274-78.
- Topping, Donald M. 1968. Linguistics or Literature: An Approach to Language. *TESOL Quarterly* 2. 2. 95-100.
- Yorke, Malcolm. 1980. Encountering the Nove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ELT Journal* 34. 4. 314-15.
- Zyngier, Sonia. 1981. Teaching Literature to Undergraduate EFL Students. *English Teaching Forum* 19. 1. 33-34.

Literature in TEFL

Myung-Shin Sh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lace of literature in a TEFL program. More specifically, it discusses the problems like the following:

- (1) the aim of the study of literature in second or foreign language teaching
- (2) reading literature as a literary experience
- (3) the common arguments for and against using literature in a foreign language program
- (4) the linguistic and cultural preparedness of students for successful reading of literary texts
- (5) mutual incompatibility between reading literature for a literary experience and using literature for learning language skills
- (6) the principles of selection and class treatment of literary texts.

It is suggested that literature has no legitimate place in a TEFL program, if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skills is a primary goal and non-literary materials accomplish this goal more effectively than the medium of literature does.